

# 日東壯遊歌와 日本의 歌舞伎

張 德 順\*

## 1

日東壯遊歌는 朝鮮王朝의 派日通信使의 많은 紀行錄中 唯一한 한글 作品이다. 作者 金仁謙은 漢文學에 通達한 선비요 또 우수한 漢詩詩人이기도 한데 이 작품만은 한글로 지어서 후세에 남겨 놓았다는 것은 우리 文學史를 위해서는 큰 意義를 갖게 한다.

日本을 방문한 朝鮮通信使의 紀行錄의 叢集으로는 漢文으로 된 〈海行摠載〉가 있다. 여기에는 宣祖 40년(1607)에 국교회복을 목적으로 한 때 부터 英祖 39년(1763) 金仁謙이 수행한 때 까지 총 11회에 걸친 紀行錄이 15종이나 된다. 그런데 金仁謙과 同行한 正使 趙燾은 〈海槎日記〉를, 同僚선비인 南玉이 〈日觀記〉와 〈日觀詩草〉를 元重擧가 〈乘槎錄〉을 각각 지었는데 모두 漢文이었다. 同行한 사람들의 작품이 모두 漢文으로 되어 있는 것에 느낀바 있어서 日東壯遊歌는 한글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느낀바〉라는 것은 여러 모로 해석되지만 요약하면, 첫째로 그의 고유문자에 대한 애착이요, 둘째 넓은 見聞과 日本에 대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의 표현은 역시 우리말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漢文보다도 더 편리했기 때문이었고, 셋째 同行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漢文으로만 쓰는 것에 대한 반발로서 한글로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은 그의 自主意識이 강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작품을 통독하면 넉넉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西浦·松江·孤山 등등 朝鮮時代의 많은 선비들이 漢學에 能通하면서도 한글 작품을 남겨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金仁謙도 고유문학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한글로 외국기행문을 지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人文大 教授(國文學專攻)

## 2

나는 십여년전에 <日本紀行의 日東壯遊歌>라는 제목으로 論文을 발표한 바 있다(拙著 韓國文學史 所收). 그런데 최근에 日本의 <歌舞伎脚本集上>에서 本作品에 있는 事件을 主軸으로 한 歌舞伎「韓人漢文手管始」를 읽을 기회가 있었다. 이는 극히 주목할만한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되어 本稿를 쓰려는 것이다.

金仁謙은 일본을 원수의 나라로, 日本人을 「개 돼지만도 못한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好戰的이며 잔인한 日本人에게서 어떤 피해의식까지 갖고 있었는데 마침, 使臣一行이 大阪城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殺人事件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朝鮮使臣一行中 上方執事 崔天宗이 日人에게 殺害당한 일이다. 이것은 커다란 不祥事이면서도 日本側에서도 重大한 事件이었던 것이다. 오백명(당시 477명) 가까운 일행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치는 사람(狂人)도 생기고, 병자도 생기고, 그 밖의 大小事件이 많았지만 이는 通信使 집안의 일이다. 그러나 日本땅에서 朝鮮外交官이 日人에 의해 被殺되었다는 것은 국제적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金仁謙은 이 사건에 대해 남달리 흥분하고 분개했다. 日東壯遊歌에는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서술했는데, 그는 日本側이 故意로 犯人 체포에 능장을 부린다고 비난을 퍼 부었다. 이는 日本當局(官員)과 犯人이 공모하였기 때문에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려들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오랜 시일이 지나서 犯人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이어서 亡人의 慰靈祭, 大阪尹의 사과문(?) 등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을 짓고 통신사 일행은 다시 歸國길에 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日本側기록에 의하면 日本이 故意로 범인 체포에 능장을 부린 것은 아니었다. 對外的인 一大事件이므로 日本側의 여러 文獻에 기록되어 있다(攝陽奇觀・明和雜記 등). 日本側의 자료는 1764(日本, 明和元年)年 4月 7日 朝鮮使節의 한 사람인 崔天宗이 宗對馬守의 通辭인 鈴木傳藏에 의하여 大阪의 宿所인 西木願寺의 御堂에서 피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殺

人犯人 鈴木傳藏은 丹波로 도망갔으나 池田의 「饅頭屋」이라는 여관에서 「町奉行」의 下使인 八田五郎左衛門에게 체포되어 犯行을 自白했고, 5月 2日 「三軒屋」에서 사형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 攝州의 小濱에서 체포되었다는 說도 있다. 「明和雜記」에 의하면 犯人의 伯父가 無量寺근처의 절 주지(寺住職)였으므로 이 절이 의심을 받게 되어 그 住持가 잡혀서 禁牢되었다는 說도 있다. 사건 발생에서 범인의 처형까지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日本側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성의는 다한 것으로 여겨 진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日東壯遊歌의 내용과 日本側記錄을 보면 거의 一致하고 있다는 점이다. 紀行文으로서의 정확한 日程, 事實의 記述을 견지하면서도 作者의 분노·적개심 등의 감정이 역력히 나타나 있다는 것은 다시 인식해야 하겠다.

事件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기에 여기 兩側의 기록을 표로써 비교하겠다(여기 引用하는 것은 前掲한 <歌舞伎脚本集>의 해설에 의한 것이다).

	日 東 壯 遊 歌	歌 舞 伎 解 說
1. 被 殺 者	上房執事 崔天宗	朝鮮使節의 一人 崔天宗
2. 被 殺 日 字	4月 7日(1764. 英祖 40)	4月 7日(1764. 明和元年)
3. 犯 人	對馬島傳語官, 鈴木傳藏	宗對馬守의 家中通辭 鈴木傳藏
4. 殺 人 理 由	天宗이 거울(鏡)을 분실하자 鈴木傳藏이 훔친것으로 알고 매질을 했더니 화가나서 죽였다.	重寶의 香箱紛失이 朝鮮人所行이라고 해서 傳藏이 天宗을 죽였다.
5. 체 포 경 위	霜波州로 도망→彌津→池田에서 체포.	丹波로 도망→池田의 饅頭屋에서 체포.

위의 비교표에서 殺人理由가 兩側이 약간씩 다르지만, 특히 날짜와 人名은 꼭 같다. 이 사건이 貴族用的 거울(鏡)이나 香箱의 분실로 인한 殺人事件이라는 것이 아마도 劇作家의 호기심을 유발한 것 같다. 그래서 歌舞伎의 소재로 채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여기서 잠간 日本의 歌舞伎에 대한 설명과, 崔天宗 事件이 어떻게 劇化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낀다.

歌舞伎는 애초엔 女藝였었다. 춤과 노래가 섞인 예능으로 <好色을 주로> 했는데 차차 科白劇의 要素까지 삼입되게 되었다. 이런 경우 狂言師도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624~1629년 사이에 女歌舞伎는 금지되었다. 女子에 의해서 창시된 歌舞伎엔 女子의 등장은 사라지고, 男子가 女裝을 하고 演出케 되었는데 이 때에는 男色趣味에 호소하는 것이 흔해졌다. 그러면서 歌舞伎는 한편 歷史的인 사건(時代物)이나 獵奇의 事件을 그 소재로 다루게 되었다.

崔天宗 殺害事件은 이 두가지를 겹쳤고 또 외국과의 관계에서 빚어졌으니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歌舞伎가 이것을 看過할 수가 없어서 作品化하였을 것이다. 원래 歌舞伎(가부키)의 語源的 意味는 「異常한 行爲를 한다」라고 했으니, 女色이나 男色이 異常한 行爲일 수 있고 한편 獵奇의인 살인사건도 「異常한 行爲」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歌舞伎는 이 두개의 主流——男女의 戀愛와, 歷史的인 것——로 興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崔天宗 被殺事件은 日本에선 <唐人殺害>로 통칭되고 있다. 朝鮮人도 모두 唐人으로 간주한 通俗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韓人漢文手管始>는 이 事件 25年 後인 1789, 7月 17日부터 大阪角의 芝居中山福藏座에서 上演되었다. 그리고 1871년에 또 上演하다가 이틀 후에 興行이 中止되었는데 이것도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崔天宗事件이 歌舞伎構成에서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日本의 <歌舞伎研究> 13輯에서 간추려 보겠다(渥美清太郎紹介). 唐使 天敬宗(崔天宗)의 饗應役 木下簀次郎은 傾城大橋와 사랑하며 방탕하다가 重寶의 香箱이 분실된다. 이것은 唐人(朝鮮人)들의 惡計라고 알려져서 家臣이며 通譯役인 續傳七(鈴木傳藏)이 香箱을 되찾으려고 天敬宗을 비롯해 唐人數名을 죽이고 도주했는데, 실수로 濱田甚左衛門이라는 하인까지 죽였다. 濱田의 아들 濱田郷助

가 傳七을 추적하여 傳七의 아버지가 住持로 있는 淨土寺에 突入한다. 여기서 傳七의 아버지인 住持의 哀願과 傳七의 아내가 自殺까지 하면서 비는 틈에 鄉助는 傳七을 놓쳐버리고 만다. 그 후 鄉助는 계속 傳七을 추적하다가 진달래山(日本語로 쯔쯔지山)에서 傳七을 죽였다는 줄거리인 것이다. 이것으로 이 사건은 日本의 歷史劇(時代物)에 흔히 원용되는 〈원수갚기〉——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끝까지 찾아서 죽인다는 日本式 挿話가 끼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日本人들의 趣向에 알맞는 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崔天宗事件은 이 〈韓人漢文手管始〉 이외의 歌舞伎에도 많이 挿入되었다. 그것은 그만큼 興行의 가치가 있고 또 그 効果도 컸었기 때문이었으리라.

## 4

癸未通信使의 崔天宗事件은 물론 다른 漢文紀行文에도 言及되어 있다. 그리고 日本의 歌舞伎도 日本땅에서 일어난 事件인만큼, 그 쪽의 여러 文獻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日東壯遊歌가 그 底本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년 가까운 외국 여행의 장편 한글 기행문에 나타난 이 사건의 서술이 일본측의 기록과 별로 차이가 없이 정확하다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日東壯遊歌가 기행가사라는 文學作品이요, 또한 한글로 서술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다른 기록인 단순한 漢字日記와 구별되고, 단편적인 사실의 기록인 日本側의 文獻과도 구별된다 하겠다.

〈朝鮮學報〉88輯(1978.7)에 李元植 教授가 〈江戸時代の 朝鮮國通信使의 遺墨에 대하여〉라는 論文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金仁謙의 글씨가 4.5點 소개되었다. 日東壯遊歌에 의하면 그는 日本人이 글씨를 요구하면 거의 거절하지 않고 (혹시 방자한 놈이 청하면 써주지 않았으나) 써 준 것만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술회하였다. 詩를 지어 준 것만도 그 편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日本땅에 남겨 놓은 遺墨들은 日東壯遊歌와 作家研究에 있어서도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日東壯遊歌는 紀行文으로서의 文學的 考究外에도 당시의 外交, 日本의 社會·文化·經濟 등 전반에 걸쳐서 연구

될 좋은 자료이다. <海行摺載>를 비롯한 餘他 漢文記錄과 상호 비교 고찰하고 韓·日 兩國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면, 많은 문제가 제기 될 것이고 오늘의 韓·日 관계에도裨益되는 바가 많을 것이다.

(本稿를 위해 日本側 資料를 快히 제공해 준 長友 李慶善博士에게 感謝한다.)